

한·일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

A Study on the Materialism of Korean and Japan Undergraduates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정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권정원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Jeong-Sook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 Kwon, Jung-Won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variables related to materialism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Japan. A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and 477 samples were selected.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ve higher materialism tha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undergraduates are influenced by reference group, but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re influenced by group identity. Materialism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influenced by nonmaterialism, reference group, perception of living level, self concept, pocket money, mother's job. Materialism of Japan university students is influenced by nonmaterialism, group identity, perception of living level, grade. The strongest predictor of materialism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s nonmaterialism, followed by reference group. The strongest predictor of materialism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is nonmaterialism, followed by group identity.

▲ 주요어(key words) : 물질주의(materialism),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집단정체감(group identity)

1. 서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물질은 물질적 재화의 사용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물질 자체가 의식과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물질적 재화의 소비를 통하여 심리적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상승시키려고 한다.

물질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재화의 소유가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Belk, 1985)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소비(백경미, 1995), 중독적 구매(송인숙, 1993), 충동적 구매(김미선, 1996)성향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물질적 재화의 소유와 소비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재화의 쾌락적 소비가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게 됨으로서 자원의 낭비는 물론 필요 이상의 지나친 과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승문사상과 선비사상의 강조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재화의 개인적 사유관심(私有觀心)이나 개인의 타산적 이윤추구가 도덕적으로 억제되었다(김영숙, 1985). 유교사상에서 개인의 바람직한 물질생활로 제시된 안빈낙도는 물질초월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양식(성영신 등, 1994)으로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물

* 주저자 : 김정숙 (E-mail : helena@cheju.ac.kr)

질을 추구하면서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는 생활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적인 풍요를 향유하는 현대사회에서의 물질은 초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향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물질적 재화 자체를 사회적 성공과 노력의 표시로 생각하는 소비지향적 물질주의성향이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다.

Belk · Pollay(1985)는 미국의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물질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 호소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Belk · Bryce(1986)는 미국과 일본의 광고를 물질주의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일본은 일반적으로 지위상징주의에 대한 강조가 높았고 미국은 개인주의와 눈에 띄는 것에 대한 강조가 높았으며 잡지광고에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물질주의적 호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Friedman(1985)은 2차 대전 후 비상업적 물질주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상업적 물질주의는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소비지향적 물질주의 가치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금욕주의와 함께 양 극단적 형태로 존재해 왔다. 초기에는 사회적 관심이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자 윤리로서 금욕주의가 강조되어 왔으나 생산력의 증대로 사회 전 계층으로까지 다양한 소비재의 사용이 가능해지자 사회적 관심이 생산보다는 소비에 집중이 되면서 소비지향적 쾌락적 물질주의가 더 뚜렷한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송인숙, 1991).

대학생시기는 발달심리학적 구분에서 보면 청소년후기에 해당되는 과시의 시기(장병림, 1985),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인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의 부족으로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신세대로 묘사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소비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를 확대하는 주도적인 연령층으로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다. 소비를 자신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으며(임성희, 1994), 개성추구와 유행추종, 감각적·외모지향적 소비, 즉흥적·충동적 소비, 소비의 향유 등의 소비행태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절반 정도는 소비주의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상희, 1996, 1997).

대학생시기에 이루어진 소비와 관련된 경험들은 그들이 성인으로 독립하게 되었을 때의 소비행동유형을 결정하게 되고 미래의 건전한 소비자로서 소비문화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으로 독립하기전의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시기는 물질과 소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소비태도와 소비생활양식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미래의 예상소비자로 가게관리자가 될 여자 대학생들의 물질이나 소비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교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한국

과 일본은 집단주의적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등은 개인주의적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는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요구를 고려하느냐에 달려 있다(이철·장대련, 1994)고 할 수 있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정도와 의사소통정도는 소비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이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성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아개념, 준거집단, 집단체감, 비물질주의성향 등이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한국과 일본 여자 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물질주의성향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물질주의성향의 개념과 특성

물질주의는 원래 물질과 그것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개념으로 언급되었으나 그 개념이나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주의라고 하면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송인숙, 1991), 행동을 이끌어 가는 가치(Richins · Dawson, 1992)로 소비자가 정신에 비하여 물질적 소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지향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말 사전(신기철·신용철, 1980)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정신적인 것을 무시하고 의, 식, 주 따위의 문제를 제일 중히 여기는 입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Oxford 사전에서는 물질적 욕구와 욕망에 대한 헌신(전념), 정신적 문제(생활의 방법)의 경시 혹은 전적으로 물질적 관심에 기초를 둔 의견이나 경향으로 언급되고 있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는 높은 수준의 물질적 소비가 목표로서 기능을 하고 일련의 계획을 제공해주는 life style로(Daun, 1983), 구매와 소비가 행복으로 이끈다는 믿음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을 포함하고 있다(Mckeage · Richins · Debevec, 1993). 물질주의는 생활에 있어서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행복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수준이 높아지면 물질의 소유가 개인의 삶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만족·불만족의 가장 큰 원천을 제공한다고 믿게 된다(Belk, 1983, 1984, 1985). 또한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의 소유를 통하여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고(Mckeage · Richins · Debevec, 1993) 물질소유의 양과 질로서 성공을 정의하려고 한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성향

이 높은 소비자들은 생활의 만족을 위해 물질의 획득과 소비가 필요하며 확대된 소비수준이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Richins·Najjar, 1992).

이러한 인간의 물질추구성향은 스스로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인간만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향으로 인간의 본성을 세우는 것도 있다. 물질을 추구하는 욕구는 생물적 감각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핍동기(deficiency motive)로서 물질추구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성을 실현하려는 욕구는 성장동기(growth motive)로서 물질초월동기(성영신 등, 199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선천적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가치 지각자로서 마음을 기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물질추

구동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도의 물질이 결핍된 상황하에서 물질초월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성영신, 1994).

이상의 여러 견해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물질적 재화의 획득과 소유를 행복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하고 물질의 소유, 획득을 통하여 심리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물질주의의 하위차원과 측정

물질주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하위차원들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다. 측정방법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선행연구의 물질주의 측정

연구자	대상	측정방법	신뢰도
Dickins·Ferguson(1957)	7-8, 11-12세 어린이	5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Campbell(1969)	대학생, 성인	8 문항을 강력한 선택형으로 구성	
Justice·Birkman(1972)	취업성인, 감옥수감자	Brickman의 직업관심과 태도조사 하위척도 이용, 사회적 인식과 자아 이미지에 관한 정오질문으로 추론	.78
Wackman·Reale·Ward(1972)	청소년	5개 문항, 리커트척도	
Bengston·Lovejoy(1973)	3세대 가족	재정, 소유, 서비스 등 16개의 가치순위를 근거로 물질주의/인문주의의 요인점수를 구함.	
Burdal(1975)	대학생, 군인	Cattell의 동기분석검사에 대한 요인점수로 물질적 동기들 추론	
Jackson·Ahmed·Heavy(1976)	여러 문화권 성인, 대학생	6개 차원의 성취척도를 획득욕의 하위척도, 의미분별형용사로 구성, 리커트척도	.80
Moschis·Churchill(1978)	"	Wackman 등(1972)의 척도 적용, 6 문항	.53-.71
Inglehart(1981)	유럽, 미국성인들	물질주의자와 후기물질주의자들의 12가지 목표를 중요성으로 순위 결정	
Belk(1984)	대학생, 성인	부러움, 관대함, 소유욕 등 인성특성으로 측정, 24 문항, 리커트척도	.48-.73
Friedman(1985)	베스트셀러 문학작품	상표명과 제품명을 언급한 횟수로 측정	
De Young(1985-6)	성인	비물질주의의 4 문항, 리커트척도	.78
Richins(1987)	성인	2개 하위척도, 6 문항, 리커트척도	.73-.61
Heslin·Johnson·Blake(1989)	학생	물질주의의 하위척도로 낭비척도 6문항, 리커트척도	.76
Richins·Dawson(1992)	대학생, 대학원생	물질적 가치에 따라 생활중심적/행복추구적/성공수단, 3개 하위척도, 18 문항, 리커트척도	.71-.88
주섭종(1995),	20세이상 성인	성공수단/생활중심/행복추구, 3개 하위척도 16문항, 리커트척도	.48-.64
송인숙(1993), 백경미(1995)	주부	개인적 물질주의신념 5문항, 물질주의 가치척도 10문항, 리커트척도	.73, .75
이지혜·김정숙(1997), 서정희·석봉화(1998)	중고교생	물질주의 가치척도 10-12문항, 리커트척도	.86, .74
신기연(1998)	남자고교생	물질소유행복관/질투/소유/인색, 4개 하위척도 23문항, 리커트척도	.62-.79
김정숙(1999)	대 학생	행복추구/성공추구/소유추구성향, 3개 하위척도, 17문항, 리커트척도	.73-.84
김형길·김정희(2000),	선연령	성공수단/생활중심/행복추구, 3개 하위척도 18문항, 리커트척도	
이은희·김성숙(2000)	중고교생	소유·소비가치/사회적 성공가치/생활중심가치, 3개 하위척도, 12문항, 리커트척도	.75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	여자대학생	성공수단적/획득중심적/행복추구적, 3개 하위척도, 18문항, 리커트척도	.85

주) Richins·Dawson(1992, 306)의 표를 참고로 재구성.

물질주의를 처음으로 측정된 사람은 Dickens와 Ferguson(1957)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5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Inglehart(1981)는 유럽과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요성으로 순위가 매겨진 12가지 목표로 물질주의자와 후기물질주의자들의 목표를 측정하였으며, Csikszentmihalyi · Rochberg-Halton(1978)은 물질주의를 수단적 물질주의(*instrumental materialism*)와 궁극적 물질주의(*terminal materialism*)로 구분하고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수단적 물질주의는 어떤 한계가 있으나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궁극적 물질주의는 끝없이 상승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Friedman(1985)은 물질주의를 사용된 언어에 반영된 가치로서 파악하여 광고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형성되는 상업적 물질주의(*commercial materialism*)와 재화의 획득과 사용에 관한 일반적 관심을 나타내는 비상업적 물질주의(*non-commercial materialism*)로 구분하였으며, 베스트셀러 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전자는 상표명을 직접 언급한 횟수로 후자는 일반제품명을 언급한 횟수로 측정하였다.

Belk(1984)는 물질주의를 개인의 인성특성 차원에 따라 소유욕(*possessiveness*), 인색함(*nongenerosity*), 질투심(*envy*)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여 총 2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유욕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통제나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과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탐욕(*acquisitiveness*)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소유욕은 획득 후의 대상물과의 관계이고 탐욕은 획득하기 전과 획득하는 동안의 대상물과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인색함은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질투심은 행복, 성공, 명성, 혹은 바람직한 어떤 것의 소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우월성에 불쾌감과 나쁜 기분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Richins와 Dawson(1992)은 물질주의를 생활중심적 물질주의(*Acquisition Centrality*), 행복추구적 물질주의(*Acquisition as the Pursuit of Happiness*), 성공추구적 물질주의(*Possession-defined Success*)등 세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고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중심적 물질주의는 소유와 획득을 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행복추구적 물질주의는 삶에 있어서 만족과 복지에 소유와 획득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수단적 물질주의는 축적된 소유의 양과 질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주섭중(1995)과 김형길 · 김정희(2000)는 Richins와 Dawson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우리 나라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성공수단, 생활중심, 행복추구의 3개 하위척도로 구분하여 16-1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김정숙(1999)은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등의 3개의 하위척도를 17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전귀연(1998)은 물질소유성공행복관, 질투, 소유, 인색 등 4개의 하위척도로 23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은희 · 김성숙(2000)은 물질의 소

유 · 소비가치, 사회적 성공가치, 생활중심가치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분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홍은실 · 황덕순 · 한경미(2001)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수단적, 획득중심적, 행복추구적 등의 3개 하위척도를 18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송인숙, 백경미, 이지혜 · 김정숙, 서정희 · 석봉화) 물질주의의 신념과 관련하여 5문항에서 12문항으로 구성하여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물질주의성향을 행복추구성향, 성공추구성향, 소유추구성향 등 세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3. 물질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준거틀 내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지각된 바로 그 개인(Laudon · Dellabitta, 1984)이다.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그 자신과 관련하여 가지는 생각과 느낌의 총체이며 이는 한 개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인식, 태도, 느낌 및 자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의 특징, 능력에 대한 지각, 타인 또는 환경과 관련된 자신의 지각 또는 개념, 경험과 연합된 자아개념은 지각된 가치의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내포한 것으로서 지각된 목표와 아이디어로 형성된다(Engel 등, 1986). 이와 같이 인지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지각의 조직된 형태인 자아개념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이나 그 자신에 대한 느낌 일체가 포함되고 있다.

자아개념은 개인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아개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며, 상징적 재화의 소비를 통하여 자아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행동을 하게 된다(Sirgy, 1982). 소비선택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자아개념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Belk · Mayer · Bahn, 1982) 자아개념은 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며(Landon, 1974), 제품이나 상표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개념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제고시키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심리적 동기의 실체인 자아개념은 소비자행동에 있어서 동기화와 준거틀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소비자들의 소비욕구 및 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들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욕구와 동기에 따라 제품이나 상표의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

이미용(1991)은 자아개념을 가치지향에 따라 전통지향적, 사회지향적, 사치지향적 자아개념으로 나타냈으며, 이 중 사치지향적 자아개념이 과소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박은아의 연구(1994)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소비자가 현실적 소비를 통해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지혜 · 김정숙(1997)의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과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물질주의성향과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가 자아개념을 나타낸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아개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자신의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므로 자아개념과 물질주의성향은 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보상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개념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유명상표의 고가제품 구매나 사용을 통하여 자신의 낮은 자아개념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하여 자신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상대적 위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므로 자아개념과 물질주의성향은 부적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집단정체감

사회정체감 이론에 따르면 특정 소비자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교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집단행동은 성격과 태도 등 세부적 개인 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인행동과 다르게 나타난다(Bagozzi · Lee, 1999a, b). 인간의 타인에 대한 관계, 즉 사회적인 관계는 크게 나누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는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요구를 고려하느냐에 달려 있다(이철 · 장대련, 1994).

집단주의 문화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유머광고의 주요 등장인물이 집단위주이며, 주요등장인물간의 관계가 상이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등 집단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적 배경이 강한 미국에서는 유머광고의 주요 등장인물이 개인위주이며 주요등장인물들의 관계도 보다 평등한 관계,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보다 개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철, 1992).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우리'라는 의식을 강하게 지니면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라는 내집단은 소비자 집단정체감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작용하며 소비생활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령, 교육, 사회적 지위 등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는 강한 유대관계로 결속되어 동질적 연결이 나타나게 된다.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우리'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집단 선호는 강해지고 외집단 배타현상은 뚜렷해진다(이규현 · 오장균, 2000).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에 대한 강도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과 집단의 대립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그것은 소비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규현 · 오장균(2000)의 연구에 의하면 N세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단정체감이 이동전화기를 수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변수로 N세대 소비자들은 이동 전화기 수용에서 집단정체감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식당선택행동에 있어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집단정체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현 · Bagozzi, 1999).

집단주의적 문화배경을 가진 유교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가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다 우선 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보다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가 우선되는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하여 개인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소비자 개인의 전반적인 행동에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집단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요구가 소비자 개인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인 개인주의 문화보다 상호의존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사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준거집단이란 개인의 태도, 의견, 가치관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집단을 의미한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을 1차 준거집단 또는 대면집단이라고 하고, 동창회, 학회, 협회, 친목단체 등을 2차 준거집단이라고 한다.

준거집단은 정보적 영향, 동일시의 영향, 규범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여러 비교상황에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Moschis, 197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이나 스타일 등에 대해 동료집단이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일게 된다(Vencatesan, 1966).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수집과정에서 친구나 이웃, 친척 등의 준거집단으로부터 상표나 제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며, 준거집단의 신념, 태도, 가치를 자신의 태도나 가치의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 준거집단의 구성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이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준거집단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체감을 찾으려고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소속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료집단이 제공한 제품이나 상표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일게 된다.

이러한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특히 제품의 사용가치나 재화의 상징적 의미가 자신의 판단 보다 구매를 통하여 전신된 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 동기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준거집단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자아이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집단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신념 · 기준 · 규범에 영향을 받게 되며 준거집단의 의견이나 태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게 된다. 구매와 관련하여 동료집단인 친구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할수록 그들로부터 상표나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제품이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은 정보제공, 비교기준, 규범제공 등에서 소비자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내면화된 뚜렷한 가치나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소비자들은 부모나 선생님의

의견 보다 연령이 비슷한 동료집단의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4) 비물질주의

비물질주의는 물질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정신주의라고 할 수 있다(박완기, 1982). 물질적 소유보다는 인간적 관계나 정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지향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은 초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물질의 소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재화의 개인적 사유관심(私宥觀心)이나 개인의 타산적 이윤추구가 도덕적으로 억제되었다(김영숙, 1985). 승문사상과 선비사상의 강조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거나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재화에 대한 관념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물질적 가치는 학문이나 도덕적 가치보다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유교사상에서는 물질을 바라는 성향은 명(命)으로 인간의 기본적 생물적 욕구이며 본성은 생물적인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 예(禮)란 사치한 것 보다는 검소한 것이며 예를 지키므로 고루해지더라도 그것이 분수에 넘치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였으며 바람직한 물질 소비행동규범으로 물질유무에 좌우되지 않는 일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하게 축적한 물질은 예에 맞게 향유하고, 본성을 실현하다 얻게 된 가난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즐기라고 하였다(성영신 등, 1994). 개인의 바람직한 물질생활로 제시된 안빈낙도(安貧樂道)는 물질초월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물질추구성향은 스스로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인간만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성향으로 인간의 본성을 세우는 것도 있다. 물질을 추구하는 욕구는 생물적 감각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핍동기(deficiency motive)로서 물질추구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성을 실현하려는 욕구는 성장동기(growth motive)로서 물질초월동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선천적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가치지각자로서 마음을 기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물질추구동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도의 물질이 결핍된 상황 하에서 물질초월동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성영신 등, 1994).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물질을 추구하면서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는 생활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다.

김철민(1996)에 의하면, 절제성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과시적 구매, 체면구매, 충동구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질추구동기인 결핍동기가 강력하게 유발되면 본성을 실현하려는 성장동기의 활성화는 저해가 된다. 물질추구동기

를 최소한도로 억제하고 물질초월동기를 활성화시켜 본성을 길러야 한다. 양적이고 물적인 관계보다 질적이고 비물질적 인간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건전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비물질주의에 바탕을 둔 가치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5)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의 가치성향은 개인적 요인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주섭중(1995)은 여자가 남자 보다 생활중심적 및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성향이 강하고 젊은 층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성향이, 연령이 많은 층은 생활중심적 물질주의성향이 강하다고 하였으며, 송인숙(1993)은 물질주의는 연령, 교육수준과는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형길·김정희(2000)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성향은 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정희·조영희(1997), 송은경(1997),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는 김정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학생 모두 소유추구적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은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소유추구적 물질주의성향과 성공추구적 물질주의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은 여자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에서 성장할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물질주의가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1992)에 의하면 청소년소비자들은 상품구매성향에서 품질보다는 외형에 치우쳐 사치스럽고 고급스런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 물질주의적 사고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물질주의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정희·조영희, 1997).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외에 자아개념, 집단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 비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성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아개념, 준거집단, 집단체감, 비물질주의성향 등이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및 자아개념, 집단정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비물질주의성향이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물질주의성향과 비물질주의성향 척도는 백경미(1995), 주섭중(1995), 송인숙(1993), 이미용(1991), 전귀연(1998), Richins·Dawson(1990, 1992), Belk(1984), 박은아(1994), 김정숙(1999)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물질주의성향은 물질, 재산, 돈, 경제능력 등을 추구하는 성향과 관련하여 물질적 소유가 인간의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추구성향, 물질적 부를 사회적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성공추구성향, 물질의 소유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유추구성향 등의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8문항, 6문항, 8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각각 .82, .74, .74이었다. 비물질주의성향은 물질보다는 인간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65이었다.

<표 2>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척도	문항	한국	일본	계
		여자대학생	여자대학생	
행복추구성향	8	.8511	.7602	.8187
성공추구성향	6	.6846	.7078	.7408
소유추구성향	8	.8111	.6563	.7364
긍정적 자아개념	9	.9026	.8151	.8894
자주적 자아개념	8	.8184	.7915	.8098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5	.8037	.8692	.8374
집단정체감	5	.8398	.8525	.8459
비물질주의성향	5	.6744	.6692	.6564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는 백경미(1995), 박은아(1994), 최보가·전귀연(1993), 송인숙(1993), Sirgy(1982), Landon(1974)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자아개념은 자신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 느낌 및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느낌 및 평가와 관련하여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자아개념 9문항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성향이 있는 자주적 자아개념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각각 .89, .81이었다.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은 백경미(1995), 양희(1992), 이미용(1991)의 연구를 기초로 친구들과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정도와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4이었다. 집단정체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규현·오장관(2000), 이규현·Bagozzio(1999)의 연구를 기초로 집단의 소속감과 관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5이었다. 생활수준인지는 주관적인 인식정도에 대하여 1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어 설문지는 일본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한 연구자에 의해 번역·작성되었으며 국내 대학의 일어일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원어민 교수로부터 사독을 받았다.

3. 자료수집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9월 20일 한국 여자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한국은 대구와 제주지역에서 일본은 오키나와(沖縄)와 나라(奈羅)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477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방법 및 경로분석방법이 이용되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Varimax 직교회전방법으로 회전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α계수로 검증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조사대상자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3> 및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변수		한국여자대학생		일본여자대학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 이하	60	24.5	65	28.3
	19~20세	115	46.9	135	58.7
	21세 이상	70	28.6	30	13.0
용돈	10만원(2만원)이하	34	13.8	72	35.5
	10~15만원(2~4만원)	47	19.1	53	26.1
	15~20만원(4~6만원)	91	37.0	37	18.2
	20만원 - (6만원 -)	74	30.1	41	20.2
계열	인문사회계	152	61.8	139	60.2
	자연계	94	38.2	92	39.8
종교	불교	68	27.6	60	26.4
	기독교	69	28.1	4	1.8
	없음	102	41.5	150	66.1
	기타	7	2.8	13	5.7
주거상황	자 가	181	73.6	175	76.4
	자 취	35	14.3	41	17.9
	기 타	30	12.1	13	5.7
학년	1학년	50	20.3	60	26.2
	2학년	67	27.3	74	32.3
	3학년	68	27.6	76	33.2
	4학년	61	24.8	19	8.3
생활수준	상	31	12.6	42	18.4
	중	159	64.6	144	63.2
	하	56	22.8	42	18.4
계		246	100.0	231	100.0

주) 무응답으로 빈도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3〉 참조), 연령은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 모두 20세가 가장 많았으며 계열은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계보다 많았다. 학년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은 1, 2, 3, 4학년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은 4학년이 적었으며 한국과 일본 모두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용돈은 한국은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가 37.0%로, 일본은 2만원 이하가 35.5%로 가장 많았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은 58.5%가, 일본여자대학생들은 33.9%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여자대학생들은 불교와 기독교가 약 28%로 비슷하였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은 불교는 26.4%이었지만 기독교는 1.8%에 불과하였다. 생활수준인지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었다.

〈표 4〉 조사대상자 가정의 일반적인 사항

변 수		한국 여자대학생		일본 여자대학생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가족수	4인 이하	91	37.1	96	42.1
	5인	102	41.7	74	32.5
	6인 이상	52	21.2	58	25.4
부연령	46세 미만	16	6.7	26	12.0
	46~50세	77	32.2	86	39.6
	51~55세	98	41.0	74	34.1
	56세 이상	48	20.1	31	14.3
모연령	46세 미만	58	23.8	63	28.1
	46~50세	121	49.6	104	46.5
	50~55세	51	20.9	48	21.4
	55세 이상	14	5.7	9	4.0
부학력	중졸 이하	52	22.0	20	9.6
	고 졸	124	52.6	66	31.7
	전문대 이상	60	25.4	122	58.7
모학력	중졸 이하	108	45.0	9	4.2
	고 졸	113	47.1	101	47.4
	전문대졸 이상	19	7.9	103	48.4
부직업	전문·기술직	26	11.2	30	13.9
	단순노무직	30	12.8	25	11.6
	자영업	67	28.8	42	19.4
	판매·서비스직	20	8.6	6	2.8
	행정·관리·사무직	48	20.6	99	45.8
	농어축산·무직	42	18.0	14	6.5
모직업	유 무	108	46.0	124	55.6
		127	54.0	99	44.4
소득	150만원(30만엔)이하	61	24.8	61	26.5
	150~200만원(30-45만엔)	64	26.0	60	26.1
	200~300만원(45-60만엔)	87	35.4	55	23.9
	300만원 - (60만엔 -)	34	13.8	54	23.5
주택 형태	단독주택	145	58.9	145	63.3
	아파트	77	31.3	33	14.4
	연립주택	18	7.4	38	16.6
	기타	6	2.4	13	5.7
주택 소유 형태	자 가	207	84.1	163	71.8
	전 세	23	9.4	62	27.3
	기 타	16	6.5	2	.9
계		246	100.0	231	100.0

주) 무응답과 편모 또는 편부로 빈도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조사대상자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4〉 참조), 가족수는 한국여자대학생들은 5인이 41.7%로, 일본여자대학생들은 4인 이하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은 51세 이상 56세미만이 41.0%로, 일본여자대학생들은 46세 이상 51세 미만이 39.6%로,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은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 모두 46세 이상 51세 미만이 각각 49.6%, 46.5%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은 전문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은 중졸 이하와 고졸이 비슷하였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은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이 비슷하였다. 가족수와 부모의 연령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이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일본여자대학생들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54.0%이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55.6%이었다. 가계소득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이 2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35.4%, 일본여자대학생들은 30만엔 이하가 26.5%로 각각 높은 비율을 보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의 차이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5〉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의 차이

물 질 주 의	집 단	평 균 (문항평균)	표준편차 (분향)	t
행복추구성향	한 국	26.22(3.28)	5.31(.66)	4.80***
	일 본	23.77(2.97)	5.08(.64)	
성공추구성향	한 국	18.77(3.13)	3.72(.62)	9.35***
	일 본	15.29(2.55)	3.83(.64)	
소유추구성향	한 국	27.76(3.47)	5.13(.64)	3.08**
	일 본	26.23(3.28)	4.97(.62)	

주) **p < .01 ***p < .001

〈표 5〉에 의하면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서 모두 한국여자대학생들이 일본 여자대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 모두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이 높았으며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 간에 가장 적은 차이가 있는 물질주의성향은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이었으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성공추구 물

질주의성향이였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은 모두 3.0이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만 3.0보다 컸으며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약 3.0정도이었고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약 2.6으로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일본여자대학생들에 비하여 물질적 부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며 물질적 부가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소유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은 모두 물질적 소유가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보다는 물질적 소유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보다 높으며 다음으로 물질적 소유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개념, 집단정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및 비물질주의성향에 따른 물질주의성향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부표 1> 및 <부표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개념, 집단정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및 비물질주의성향이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 및 <표 7>

과 같다. 부모의 연령과 학력,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학력간에는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이 모두 약 .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년만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분산확대지수가 1.0-2.1, 공차한계가 0.5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과 종교는 더미변수로 유는 1, 무는 0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방법은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입력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방정식에 의해 한국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약 22%에서 26% 정도,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약 11%에서 21% 정도 설명되고 있었다.

1)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아개념, 집단정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및 비물질주의성향이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영향

<표 6>에 의하면,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물질주의성향과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이었으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가족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학년, 종교유무, 집단정체감, 자주적 자아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직업유무, 생활수준인지도, 준거집단과의 의사

<표 6>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행복추구성향(β)	성공추구성향(β)	소유추구성향(β)
가족수	-.031	-.014	-.061
모 교육수준	.075	.061	.040
모 연령	.118	.036	.114
모직업 유무	-.164***	-.055	-.105
월평균가계소득	.122	.076	.021
생활수준인지도	.049*	.086*	-.020
학년	-.097	-.028	-.155
월평균용돈	-.120	.010	-.128*
종교유무	-.029	-.034	-.028
준거집단 의사소통	.217***	.212**	.304***
집단정체감	-.028	-.029	.008
긍정적 자아개념	.095	.194**	.053
자주적 자아개념	-.038	-.072	-.075
비물질주의성향	-.393***	-.368***	-.389***
상수	26.597	19.534	29.063
Adjusted R ²	.237	.223	.264
F	6.032***	5.627***	6.777***

1) *p < .05, **p < .01, ***p < .001.

2) 모직업과 종교유무는 가변수로 취업유부와 종교 유는 1, 전업유부와 종교 무는 0이다.

소통, 비물질주의성향이였다. 비물질주의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모직업 유무, 생활수준인지도이였으며 비물질주의성향은 부적으로,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과 생활수준인지도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수준인지도,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긍정적 자아개념, 비물질주의성향이였다. 비물질주의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긍정적 자아개념, 생활수준인지도 순이였으며 비물질주의성향은 부적으로,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생활수준인지도, 긍정적 자아개념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용돈,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비물질주의성향이였다. 비물질주의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이였으며 비물질주의성향과 용돈은 부적으로,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용돈이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2)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자아개념, 집단정체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비물질주의성향이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영향

<표 7> 에 의하면,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물질주의성향과 집단정체감이였으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가족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 및 직업유무, 월평균가계소득 및 용돈, 종교유무,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긍정적 및 자주적 자아개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수준인지도, 학년, 집단정체감, 비물질주의성향이였으며 생활수준인지도와 비물질주의성향은 부적으로, 학년과 집단정체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집단정체감, 비물질주의성향이였다. 비물질주의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학년이였으며 비물질주의성향은 부적으로, 집단정체감과 학년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집단정체감, 비물질주의성향이였으며 비물질주의성향은 부적으로, 학년과 집단정체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7>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수	행복추구성향(β)	성공추구성향(β)	소유추구성향(β)
가족수	.035	.094	.033
모 교육수준	.034	-.047	.024
모 연령	.006	.033	.051
모 직업 유무	.019	.025	.020
월평균가계소득	-.050	.036	.097
생활수준인지도	-.149*	-.100	-.097
학년	.158*	.209*	.169*
월평균용돈	.133	.015	.036
종교유무	-.025	-.046	.020
준거집단 의사소통	.096	.030	.129
집단정체감	.209*	.196*	.197*
긍정적 자아개념	-.036	-.012	-.129
자주적 자아개념	.019	-.036	.033
비물질주의성향	-.385***	-.308***	-.242***
상 수	29.930	17.387	22.722
Adjusted R ²	.212	.153	.110
F	3.521***	2.685***	2.152***

1) *p < .05, **p < .01, ***p < .001.

2) 모직업과 종교유무는 가변수로 취업주부와 종교 유는 1, 전업주부와 종교 무는 0이다.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비물질주의성향과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은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물질주의성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가족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종교유무, 자주적 자아개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은 비물질주의성향 다음으로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정체감은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집단정체감보다는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보다는 집단정체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및 자주적 자아개념은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자주적 자아개념은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자아개념은 행복추구와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물질적 부로 긍정적 및 자주적 자아개념을 보상하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국여자대학생들은 물질적 부로 긍정적 및 자주적 자아개념을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물질의 소유로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년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저학년과 고학년간에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추구, 성공추구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수준인지도는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복추구 및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소유추구 및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높을수록 물질적 부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 성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은 경우보다는 낮을수록 물질적 부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과 자아개념,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 집단정체감 및 비물질주의성향이 물질주의성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추구성향, 성공추구성향, 소유추구성향에서 모두 한국여자대학생들이 일본 여자대학생들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일본여자대학생들에 비하여 물질적 부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소유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 모두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행복추구성향이 높으며 성공추구성향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다.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간에 가장 적은 차이가 있는 물질주의성향은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이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물질주의성향은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이다.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은 모두 물질적 소유가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보다는 물질적 소유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물질적 소유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다.

둘째,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높은 경향이 있으며 성공추구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

지고 있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소유추구물질주의성향은 준거 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용돈이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비물질주의성향과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 및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은 비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성공추구, 소유추구 물질주의성향에 모두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비물질주의성향이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가족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령, 월평균가계소득, 종교유무, 자주적 자아개념 이다.

넷째, 한국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집단정체감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집단정체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은 집단정체감보다는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물질주의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정도보다는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다섯째, 일본 여자대학생들은 물질적 부로 낮은 자아개념을 보상하려고 하거나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물질적 부로 자아개념을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물질적 부로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생활수준인지도는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와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그리고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및 성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경우보다는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물질주의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성향은 모두 비물질주의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집단정체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한

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이 물질주의성향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성숙이나 성취동기에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내면화된 뚜렷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동료집단인 친구들과과의 의사소통에,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동료집단인 친구들과과의 의사소통보다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유교문화권으로 집단주의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영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에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비물질주의성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물질주의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때는 물질을 주제로 하는 교육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나 정신적인 성숙을 주제로 하여 비물질주의 가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물질주의성향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한국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생활수준인지도가 낮은 학생들보다는 높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 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은 학생들보다는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준거집단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나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집단정체감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물질주의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학교에서 집단소비자교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자주적인 자아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집단의 소속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여자대학생들의 물질주의성향은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고학년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3년 08월 19일
- 심사일 : 2003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1월 11일

【참 고 문 헌】

- 김미선(1996). 물질주의성향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85).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1999). 대학생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2(2), 43-65.
-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과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길·김정희(2000). 소비자의 물질주의가 허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3(3), 43-68.
-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 남·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은아(1994).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완기(1982).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서정희·석봉화(1998).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131-143.
- 서정희·조영희(1997).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성향과 준거집단이 의복동조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28, 113-137.
- 성영신·김철민·서정희·박종구·박은아(1994).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물질관과 소비행동. *소비자학연구*, 5(1), 99-114.
- 손상희(1996). 학생의 소비주의적 성향과 영향 요인. *생활과학연구*, 2, 대전대학교, 183-200.
- 손상희(1997). 소비사회와 청소년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41-353.
- 송은경(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및 과소비성향과 관련 요인.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1991). 물질주의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1(1), 성심여자대학교, 91-104.
-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기철·신용철(1980).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 양희(1992). 청소년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현·오장균(2000). 소비자의 집단정체감이 이동전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3(1), 147-164.
- 이규현·R. P. Bagozzi(1999). 집단정체감과 소비자태도-대학생들의 식당선택행동을 중심으로-. *소비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발표집*, 99-107.
- 이미용(1991). 과소비 영향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김정숙(1997). 제주도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9(2), 1997, 161-174.
- 이은희·김성숙(2000).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관련요인. *한국소비문화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100-111.
- 이철(1992). TV광고의 유머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광고연구*, 23, 227-248.
- 이철·장대련(1994). 한국-아랍소비자구매의사결정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을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5(2), 115-133.
- 임성희(1994). 90년대 새로운 소비주의문화의 성격: 홍대 앞 문화사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병림(1985). 청년심리학. 범문사.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주섭중(1995). 소비행동에 있어서 물질주의성향과 정보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26, 257-285.
-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한국소비자보호원(1992). 학생소비형태와 학교소비자교육 실태, 1992.
-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Baudrillard, J.(1993). *La Societe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 Bagozzi, R. P. & K. H. Lee(1999a). Resistance to Innovations: Psychological and Social Origins. *경영논집*, 33(3),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82-204.
- Bagozzi, R. P. & K. H. Lee(1999b). Consumer Resistance to and Acceptance of Innovations.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26, 218-225.
- Belk, R. W. R., Mayer & K. Bahn.(1982). The eye of beholder: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consumption symbolism.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 523-530.
- Belk, R. W.(1983). Worldly possessions: issues and criticism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0, 514-519.
- Belk, R. W.(1984). Three scales to measure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measures of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91-297.
- Belk, R. W. & R. W. Pollay(1985). Materialism and magazine advertising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12, 394-398.
- Belk, R. 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180.

- Belk, R. W. & W. J. Bryce(1986). Materialism and Individual Determinism in U.S. and Japanese Print and Television Advertising, *Advance in Consumer Research*, 13, 568-572.
- Csikszentmihalyi, M. & E. Rochberg-Halton(1978), Reflections on Materialism, *University of Chicago Magazine*, 70(3), 6-15, M. L. Richins &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Daun, Ake(1983). The Materialistic Life-style: Some Socio-psychological Aspects, *Consumer Behavior and Environmental Quality*, 6-16.
- Dickins D. & V Ferguson(1957). Practices and Attitudes of Rural White Children and Parents Concerning Money, *Mississippi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Technical Bulletin*, 43, M. L. Richins &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Engel, J. F., R. D. Blackwell & P. W. Miniard(1986). *Consumer Behavior*(4th ed.) New York : The Dryden Press.
- Friedman, M.(1985). Are Americans Becoming More Materialistic? A Look at Changes in Expressions of Materialism in The Popular Literature of The Post-World War II Era,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385-387.
- Ger, Guliz & R. W. Belk(1990). Measuring and Comparing Materialism Cross-Culturall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186-192.
- Inglehart, Ronald(1981). Post Materialism in an Environment of Insecurit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880-900.
- Landon, E. L.(1974). Self Concept, Ideal Self Concept, and Consumer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44-51.
- Laudon, P. L. & A. J. Dellabitta(1984). *Consumer Behavior : Concept and Application*, New York : MacGraw-Hill Book Company Inc.
- Mckeage, K. K. R., M. L. Richins. & K. Debevec.(1993). Self-Gifts and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Valu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0, 359-364.
- Moschis, G. P.(1976). Social Comparison and Informal Group Influ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3, 237-244.
- Richins, M. L. & S. Dawson(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ichins, M. L. & S. Dawson(1990). Measuring Material Values: A Preliminary Report of Scale Develop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169-175.
- Richins, M. L., K. K. R. McKeage & D. Najjar(1992), An Exploration of Materialism and Consumption-Related Affec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9, 229-236.
- Sirgy, M. J.(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87-298.
- Venkatesan, M.(1966). Experimental Study of Consumer Conformity and Independ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3, 384-387.

<부표 1> 한국 여자 대학생의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

독립변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가족수	1.00														
b 부연령	.19**	1.00													
c 부학력	-.05	-.01	1.00												
d 모연령	.14**	.81**	-.05	1.00											
e 모학력	-.06	-.06	.69**	-.07	1.00										
f 소득	.06	.01	.25**	-.05	.28**	1.00									
g 용돈	-.04	.06	.22**	.13*	.16*	.38**	1.00								
h 연령	-.06	.18**	.13	.42**	.02	.05	.47**	1.00							
i 학년	.05	.13*	.12	.23**	.03	.12	.21**	.70**	1.00						
j 생활수준	.01	.01	.27**	-.04	.31**	.32**	.14*	-.15*	-.12	1.00					
k 준거집단	.11	-.01	-.08	-.12	-.03	.05	-.00	-.18**	-.13*	.05	1.00				
l 정체감	.03	-.00	.06	-.07	.02	.09	.09	.05	.10	.07	.13**	1.00			
m 비물질	-.07	-.03	-.08	.04	-.14*	-.08	-.13*	.01	-.03	.01	-.07	.14*	1.00		
n 긍정적	.02	.01	-.17**	-.01	-.17**	-.01	.06	.06	.00	.00	.07	.06	.15*	1.00	
o 자주적	-.01	-.03	.16*	-.04	.10	.25**	.27**	.14*	.20**	.26**	.07	.26**	.27**	.00	1.00

주) * p < .05 ** p < .01

<부표 2> 일본 여자 대학생의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

독립변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가족수	1.00														
b 부연령	-.01	1.00													
c 부학력	-.14	-.01	1.00												
d 모연령	-.09	.65**	.06	1.00											
e 모학력	-.05	-.05	.67**	.03	1.00										
f 소득	.15	-.17*	-.10	-.15*	.02	1.00									
g 용돈	-.02	.07	.06	.12	.05	.11	1.00								
h 연령	-.07	.21**	-.03	.31**	-.01	-.05	.26**	1.00							
i 학년	-.02	.12	-.11	.25**	-.10	-.00	.16	.71**	1.00						
j 생활수준	.16**	-.02	.07	-.09	.02	.06	-.04	.03	.02	1.00					
k 준거집단	-.02	-.02	-.07	-.01	-.02	-.05	-.07	-.09	-.02	-.09	1.00				
l 정체감	.08	.11	-.04	.14	.01	-.04	-.23**	-.05	-.05	.02	.18*	1.00			
m 비물질	-.02	.00	.07	-.05	.12	-.15*	-.06	.05	-.11	.01	-.02	.04	1.00		
n 긍정적	-.15*	.03	.02	.10	-.01	-.11	.10	.14	.05	.11	.11	.17*	.16*	1.00	
o 자주적	.14	-.01	-.00	-.07	.00	.14	.06	.08	-.03	.13	-.08	.16*	.12	.00	1.00

주) * p < .05 ** p < .01